

청소년의 중독성 예측 요인

박 현 숙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The Study on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21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personal-familial variables and psychosocial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with the PASW 18.0 programs. **Resul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were school type, parental violent behavior, gender, self-control,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behavior. These personal-familial variable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explained 64.1% of the variance in addictive personalit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dictive personality in adolescents can be changed positively by reducing impulsivity and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increasing self-control.

Key Words: Adolescent, Addic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핸드폰 등 다양한 중독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Kim, 2007), 이러한 중독의 문제가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Yoon, 2010),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중독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고(Gupta & Derevensky, 2000),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Chamber & Potenza, 2003)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등에 초점을 두어 왔고(Cho, 2011; Im, Lee, & Yang, 2007; Koo, 2009), 최근 새로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텔레비전 중독 등과 같은 잠재된 중독 문제는 배제되어 왔다(Kim, 2007)고 볼 수 있다.

최근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통합적으로 중독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Coombs, 2004). 즉, 다양한 중독현상이 드러나는 증상은 각기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중독행동은 신체

주요어: 청소년, 중독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

- 본 연구는 2012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투고일 2012년 10월 11일 / 수정일 2012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4일

적·심리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Kim, 2007)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중독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과 같은 특정 중독에 이환될 때 중독에 대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이 다른 중독으로 쉽게 이환될 수 있고, 복합 중독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Coombs, 2004), 모든 중독은 초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독을 해결하더라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중독으로 이환될 수 있다(Sharon, 2006). 이런 점에서 특정 중독에 초점을 둔 접근은 잠재된 청소년 중독 문제가 배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사회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중독에 방을 위해서는 중독행동 간의 유사한 심리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Kim, 2007),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비용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대상과의 첫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집단에 있어서 개별 중독 위험군을 선별하지 않고 학급단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시도로 인간의 성격특성 중 하나인 중독성 선별도구의 타당화 연구(Park & Jung, 2011)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Korean Eysenck Personality Scale, EPS)의 하위척도인 중독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였다. 아이젠크 성격검사의 하위척도인 중독성은 범죄성과는 무관한 중독 고유의 성격적 차원(Lee, 1997)이기 때문에, 중독행동 관련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중독성은 청소년 일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일평균 흡연량, 월평균 음주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보여(Park & Jung, 2011), 청소년의 중독행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중독위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독성과 관련된 개인·가족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중독성을 설명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욕구만족을 위함이며, 욕구만족이 되지 않는 한 그 활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Lee, 2011). 마약이나 알코올 혹은 니코틴의 사용과 인터넷 게임이나 소비 혹은 성행위 등도 인간의 욕구만족을 위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Kim, 2007), 중독성 역시 인간의 욕구만족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욕구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향이 낮으며, 내면의 정서를 표출하려는 욕구와 강제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율의 욕구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아(Nah, 2004), 청소년의 욕구만족 정도와 중독성 간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중 감각추구성향은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고 복잡한 어떠한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Zuckerman, 1994).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독을 포함한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으므로(Arnett, 1994), 청소년의 중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충동성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빠르고 무계획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다(Moeller, Barratt, Dougherty, Schmitz, & Swann, 2001). 충동성은 중독 발달의 초기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Kim, 2007), 신중하지 못하거나,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물질사용 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Choi & Lee, 2012). 이외에도 충동성이 높은 경우 행동이 쉽게 기분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다양한 중독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므로(Jeong, 2010), 중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기통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Park, 2011), 자기통제를 통해 덜 지연되는 작은 결과보다, 더 지연되지만 더 큰 결과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Logue, 1995),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중독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중독성과 자기통제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고(Park & Jung, 2011),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행동이 주는 쾌락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중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특히, 가족은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Kim, 2007).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물질중독이나 행동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Lee, 1997),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Kweon & Park, 2012), 부부갈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Lee, 2008)을 감안

할 때 학교유형, 성별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부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정 경제상태, 부모이혼 등을 포함한 가족 특성은 청소년의 중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 통제를 살펴보고, 개인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성적 및 종교, 가족 특성으로 가족의 월수입,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 개인·가족 특성과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중독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개인·가족 특성별 중독성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 광역도시와 2개의 지역도시에 소재한 2개의 중학교과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생 521명이다. 대상자는 중학교 2곳, 인문계 고등학교 2곳, 실업계 고등학교 2곳에서 학급 단위로 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5, 예측요인 14개일 때 적절한 피험자 수는 543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550명을 최종 목표 인원으로서, 대상자 550명을 접촉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521명(94.7%)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앞서 청소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 질문에 대해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수정사항, 추가설명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개방적인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의 학급담임, 보건교사 등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학용품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였고,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4. 연구도구

1) 중독성

중독성은 Lee (1997)가 한국에서 표준화한 Eysenck 성격검사의 하위 척도인 중독성 1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독 고유의 성격적 차원을 측정하는 것으로(Lee, 1997) 청소년의 중독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고(Park & Jung, 2011),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 욕구만족

욕구만족은 Glasser (1995)가 개발한 욕구만족 척도를 Woo (1999)가 변안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감각추구성향

감각추구성향은 Arnett (1994)의 Sensation Seeking Scale을 Oh (1996)가 변안 및 수정한 감각추구성향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충동성

충동성은 Barratt (1965)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Lee (1994)가 변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충동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5)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Gottfredson과 Hirschi (1990)의 Self Control Scale을 Nam과 Ok (2001)이 수정 변안한 자기통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am과 Ok (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므로 청소년에게 사용하기 적합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6) 개인 및 가족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성적, 종교, 가족의 월수입,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 작업을 거쳐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에 따른 중독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과 이에 따른 중독성 정도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이 253명(48.6%), 여학생이 268명(51.4%)이었고, 중학생이 186명(35.7%), 인문계 고등학생이 187명(35.9%), 실업계 고등학생이 148명(28.4%)이었다. 성적은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136명(26.1%), 중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205명(39.3%),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180명(34.6%)이었고, 종교가 있는 학생이 269명(51.6%), 종교가 없는 학생이 252명(48.4%)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학생이 146명(28.0%),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58명(49.5%), 200만원 미만인 학생이 117명(22.5%)이었으며,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69명(13.2%), 그렇지 않은 학생이 452명(86.8%)이었다.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413명(79.3%), 그렇지 않은 학생이 108명(20.7%)이었으며, 부모가 알코올중독 진단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22명(4.2%), 그렇지 않은 학생이 499명(95.8%)이었고, 부모가 신체적 폭력을 한차례 이상 보인 적이 있는 학생이 22명(4.2%), 그렇지 않은 학생이 299명(57.4%)이었다.

대상자의 개인·가족 특성에 따른 중독성 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동거 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독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t=2.78, p=.006$),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높았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 높았다($F=70.73, p<.001$). 성적은 하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보다 높았으며($F=5.71, p=.003$), 종교가 없는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높았다($t=3.45, p<.001$).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고($t=2.17, p=.030$), 가족동거 형태에서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았다($t=2.48, p=.014$). 부모가 알코올중독 진단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고($t=2.89, p=.004$), 부모가 신체적 폭력을 한차례 이상 보인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다($t=2.64, p=.009$). 대상자의 제 요인에 따른 중독성 정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2.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의 중독성 정도는 평균 8.4 ± 4.23 점(최소 0점, 최대 19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인 0~19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고, 욕구만족정도는 평균 76.7 ± 11.23 점(최소 33점,

최대 10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3~115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감각추구성향 정도는 평균 48.8 ± 11.32 점(최소 22점, 최대 8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2~88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고, 충동성 정도는 평균 54.2 ± 7.09 점(최소 32점, 최대 79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3~92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점수였으며, 자기통제 정도는 평균 65.4 ± 8.69 점(최소 31점, 최대 92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인 20~80점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중독성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

대상자의 중독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변인 중 욕구만족과 낮은 역상관계가 있었고($r=-.18, p<.001$), 감각추구성향과 다소 높은 순상관계가 있었으며($r=.64, p<.001$), 충동성과 다소 높은 순상관계가 있었으며($r=.54, p<.001$).

Table 1. Differences in Addictive Personality according to Personal-familial Variables for Subjects

(N=521)

| Variables | Categories | n (%) | Addictive personality | t or F | p |
|---------------------------------------|--|------------|-----------------------|--------|----------------------------------|
| | | | M \pm SD | | |
| Gender | Male | 253 (48.6) | 9.0 \pm 4.26 | 2.78 | .006 |
| | Female | 268 (51.4) | 7.9 \pm 4.15 | | |
| School type [†] | Middle school ^a | 186 (35.7) | 10.0 \pm 3.15 | 5.71 | .003 (a > b, a > c, c > b) |
| | Academic high school ^b | 187 (35.9) | 5.8 \pm 4.18 | | |
| | Vocational high school ^c | 148 (28.4) | 9.7 \pm 3.89 | | |
| Academic achievement [†] | High (upper 30%) ^a | 136 (26.1) | 7.0 \pm 4.31 | 10.24 | < .001 (c > a) |
| | Middle ^b | 205 (39.3) | 8.9 \pm 3.77 | | |
| | Lower (lower 30%) ^c | 180 (34.6) | 8.9 \pm 4.45 | | |
| Religion | Have | 269 (51.6) | 7.8 \pm 4.51 | 3.45 | < .001 |
| | Have not | 252 (48.4) | 9.1 \pm 3.81 | | |
| Monthly income of family (10,000 won) | ≥ 400 | 146 (28.0) | 8.2 \pm 4.54 | 1.68 | .187 |
| | $\geq 200 \sim < 400$ | 258 (49.5) | 8.3 \pm 3.93 | | |
| | < 200 | 117 (22.5) | 9.1 \pm 4.48 | | |
| Parental divorce | Divorced | 69 (13.2) | 9.5 \pm 3.77 | 2.17 | .030 |
| | Not divorced | 452 (86.8) | 8.3 \pm 4.28 | | |
| Family residence pattern | Living with parents | 413 (79.3) | 8.2 \pm 4.21 | 2.48 | .014 |
| | Others | 108 (20.7) | 9.3 \pm 4.22 | | |
| Parental alcohol abuse | A history of being diagnosed with alcoholism | 22 (4.2) | 11.0 \pm 3.02 | 2.89 | .004 |
| | No history | 499 (95.8) | 8.3 \pm 4.24 | | |
| Parental violent behavior | A history of physical violence | 222 (42.6) | 9.4 \pm 4.26 | 2.64 | .009 |
| | No history | 299 (57.4) | 7.9 \pm 9.81 | | |

[†] Scheffé test.

.001), 자기통제와 다소 높은 역상관계가 있었다($r = -.60, p < .001$).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욕구만족은 감각추구성향과 낮은 역상관계가 있었고($r = -.02, p < .001$), 충동성과 다소 높은 역상관계가 있었으며($r = .46, p < .001$), 자기통제와 중등도의 다소 높은 순상관계가 있었다($r = .44, p < .001$). 감각추구성향은 충동성과 낮은 순상관계가 있었고($r = .35, p < .001$), 자기통제와 다소 높은 역상관계가 있었다($r = -.42, p < .001$). 충동성은 자기통제와 높은 역상관계가 있었다($r = -.72, p < .001$).

4. 대상자의 중독성 예측 변인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가족 특성 중 중독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학교유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 동거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개인·가족 특성 중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심리적 변인인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는 모두 중독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서($r = -.18 \sim .64, p < .001$), 예측변인으로서의 투입 조건이 되었다.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가 .43~.98이었고, 분산 팽창 요인도 1.02~2.31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8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중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가족 특성과 심리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가족 특성으로 성별, 학교유형, 성적, 종교, 부모이혼, 가족 동거형태, 부모 알코올중독 및 부모 폭력행동과 심리적 변인으로 욕구만족,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중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개인·가족 특성 중 성별, 학교유형 및 부모 폭력행동이었고, 심리적 변인은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및 자기통제였다. 이들 변인은 중독성을 64.1% 설명하였으며, 이 중 중독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학교유형(중학교/인문계 고등학교)이었고, 다음으로 자기통제였다(Table 4).

논 의

대상자의 중독성 정도는 평균 8.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그러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Jung (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중독성 정도가 5.9점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연구대상자 특성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가족 특성은 성별, 학교유형 및 부모 폭력행동이었고, 심리적 변인

Table 2. Level of Addictiv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521)

| Variables | M±SD | Minimum | Maximum |
|----------------------------|------------|---------|---------|
| Addictive personality | 8.4±4.23 | 0 | 19 |
| Needs satisfaction | 76.7±11.23 | 33 | 105 |
| Sensation seeking behavior | 48.8±11.32 | 22 | 85 |
| Impulsivity | 54.2±7.09 | 32 | 79 |
| Self-control | 65.4±8.69 | 31 | 92 |

Table 3. Correlations among Addictive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521)

| Variables | Needs satisfaction | Sensation seeking behavior | Impulsivity | Self-control | Addictive personality |
|----------------------------|--------------------|----------------------------|---------------|---------------|-----------------------|
| | r (p) | r (p) | r (p) | r (p) | r (p) |
| Needs satisfaction | 1.00 | | | | |
| Sensation seeking behavior | -.02 (< .001) | 1.00 | | | |
| Impulsivity | -.46 (< .001) | .35 (< .001) | 1.00 | | |
| Self-control | .44 (< .001) | -.42 (< .001) | -.72 (< .001) | 1.00 | |
| Addictive personality | -.18 (< .001) | .64 (< .001) | .54 (< .001) | -.60 (< .001) | 1.00 |

Table 4. Predictors of Addictive Personality of Subjects

(N=521)

| Predictors | B | SE | β | t | p |
|--|-------|-----|---------|-------|--------|
| School type [†] d1 | -3.09 | .30 | -.35 | 10.39 | < .001 |
| Self-control | -0.16 | .02 | -.33 | 8.22 | < .001 |
| Sensation seeking behavior | 0.10 | .01 | .27 | 8.01 | < .001 |
| Impulsivity | 0.12 | .02 | .20 | 5.13 | < .001 |
| School type [†] d2 | -1.05 | .28 | -.11 | 3.72 | < .001 |
| Parental violent behavior [‡] | -0.65 | .23 | -.08 | 2.81 | .005 |
| Gender [§] | -0.46 | .23 | -.05 | 2.04 | .042 |
| Adj. R ² = .641 | | | | | |

[†] Dummy variables (middle school=0, academic high school=d1, vocational high school=d2); [‡] Dummy variable (a history of physical violence=0, no history=d1); [§] Dummy variable (male=0, female=d1).

은 자기통제, 감각추구성향 및 충동성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중독성에 대한 설명력은 64.1%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학교유형으로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중독성이 높았으며, 아울러 중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도 중독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위기의식이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물질중독이나 행동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Lee (1997)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므로, 중독예방에 있어서 중학생에 대한 차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자기통제였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이 중독성이 낮았다. 이는 자기통제가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이 높고, 중독행동 등의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Hur (2006)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와 중독의 핵심이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만성적인 상실(Kim, 2007)임을 감안할 때 중독행동에 대한 취약집단인 중독성이 높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중독행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기통제를 강화시켜 중독의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은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중독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추구성향과 문제음주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Cho (2011)의 의견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감각추구가 하나의 잠재적 성격의 경향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성향이 표현되는 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Arnett, 1994),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모험적인 비사회적 행동이 중독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창의성이나 리더십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네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충동성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중독성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할 때 충동적인 행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중독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충동성은 중독 발달의 초기단계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Kim, 2007),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기분에 의해 행동이 좌우되고, 무계획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중독행동으로 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충동조절의 곤란으로 음주문제 등과 같은 중독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Jeong, 2010), 정서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중독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의 폭력행동도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부모가 폭력행동을 보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독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크고(Kim, 2007), 가정·학교·사회 환경 중에서 가정환경이 인터넷 게임과 같은 중독행동과 가정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부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e, 2008)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불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중독성이 높고, 나아가서 행동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독예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이므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행되는 과도기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청소년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별도 중독성 예측변인이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독성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중독성의 차이를 제시한 연구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인터넷 중독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weon & Park,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독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중독성과 중독성 관련 제 변인의 차이를 검정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중독예방 교육과 상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욕구만족은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에서 욕구만족이 낮은 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행동이 특정한 욕구만족을 위한 것이며, 욕구만족이 되지 않는 한 그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Lee, 2011), 중독행동 역시 욕구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Kim, 2007)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욕구만족과 중독성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욕구만족의 대상과 방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욕구만족과 중독성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중독성은 개인·가족 특성과 심리적 변인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특성 중 학교유형과 심리적 특성인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심리적 변인 중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은 잠재적 성격의 경향이 강하므로(Arnett, 1994), 이러한 성향을 통제하고 중독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 인터넷, 휴대폰 등과 같은 중독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여 중독

행동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도 중독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추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확대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일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제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중독성 예측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인 중독행동 중심의 접근보다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간호중재를 계획해 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 감각추구성향 및 충동성의 심리적 변인이 중독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다섯째, 추후 보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청소년의 중독성 예측변인 파악을 위한 반복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가족 특성과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중독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개인·가족 특성은 학교유형으로, 중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중독성이 높았으며,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도 중독성이 높았다. 심리적 변인 중에서는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중독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고,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중독성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 방안으로 중독성에 취약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중심의 자기통제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중독행동의 위험을 인지하고, 자기통제를 통해 중독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 289-296.
- Barratt, E. S. (1965). Factor analysis of some psychometric measures of impulsiveness and anxiety. *Psychological Report*, 16, 547-554.
- Chamber, R. A., & Potenza, M. N. (2003). Neurodevelopment, impulsivity, and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9, 53-84.
- Cho, E.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expectancies, sensation seeking, and problem drink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 Choi, H., & Lee, H. J. (2012).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Conceptual issues, relationship, and clinic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 169-196.
- Coombs, R. H. (2004). *Handbook of addictive disorders: A practical guide to diagnosis & treatment*.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Glasser, W. (1995). *Staying together*. New York: HarperCollins.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7-54.
- Gupta, R., & Derevensky, J. L. (2000).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 315-342.
- Hur, M. H. (2006). Demographic, habitual, and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teenagers. *Cyber Psychology & Behavior*, 9, 514-525.
- Im, S. B., Lee, J. E., & Yang, S. (2007).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addic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14-22.
- Jeong, S. J. (2010). *The effect of impulsiveness and social support on binge eating and drinking problem: The mediat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Kim, K. H. (2007). A way to overcome addiction, to modern dunge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677-693.
- Koo, H. Y. (2009). Development of a cell phone addiction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818-828.
- Kweon, Y. R., & Park, M. S. (2012).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game addictio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 99-107.
- Lee, H. S. (1994). Patterns of impulsiveness. *Humanities Research*, 21, 93-104.
- Lee, H. S. (1997). *Korean versio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Seoul: Hakjisa.
- Lee, Y. H. (2011). *A study on influencing internet game addiction to need satisfac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impul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Lee, Y.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ogue, A. W. (1995). *Self-control*. New York: Prentice Hall.
- Moeller, F. G., Barratt, E. S., Dougherty, D. M., Schmitz, J. M., & Swann, A. C. (2001). Psychiatric aspects of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783-1793.
- Nah, H. (2004). *Effects of self-control and parent's internet control on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Nam, H. M., & Ok, S. H.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 37-58.
- Oh, M. K. (1996).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and socialization on risk behaviors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H. S., & Jung, S. Y. (2011). Validation of addiction personality scale for screen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395-403.
- Park, Y. C. (2011). *Effects on self-control and parent's internet control on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 Sharon, A. G. (2006). Why addiction has a chronic, relapsing course. The neurobiology of addiction: Implications for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22, 1-29.
- Woo, A. L. (1999). *Technology of marriage*. Seoul: Haneuljae.
- Yoon, M. S. (2010).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addi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234-266.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